

— Sat-1 —

Dysphagia lusoria 1예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최재필*, 박효진, 김기중, 김정환, 이상인, 박언서

Dysphagia lusoria란 혈관의 기형에 의해 식도가 외부로부터 눌러 나타나는 기질적 연하곤란을 일컫는 말로, 1794년 Bayford가 *lusus naturae*(trick of nature)라고 하여 처음 기술한 이래 여러 문헌을 통해 보고되고 있으며 전체 연하곤란의 0.5 ~1.8 %를 차지하고 있다. 대동맥과 대혈관의 기시 이상에 의한 식도, 기관 압박의 유병률은 좌측 쇄골하 동맥 기시 이상을 동반한 우측 대동맥궁, 중복 대동맥궁, 우측 쇄골하 동맥의 기시 이상 순이며 혈관 기형의 1%만이 증상을 일으킨다. 이를 연하곤란의 원인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른 동반 가능한 질환(아칼라지아, 위식도역류, 식도염 등)이 배제되어야 한다. 연자 등은 다른 기능성 또는 기질적 식도질환 없이 연하곤란을 호소한 Dysphagia lusoria의 1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44세 남자가 3년 전부터 점차로 심해지는 고형음식에 대한 연하곤란을 주소로 소화기 내과 외래로 내원하였다. 고형 음식을 삼킬 시 인후부는 쉽게 넘기나 목에서 걸리는 느낌이 있어 힘을 준 후에야 내려간다고 호소하였다. 과거력, 가족력, 이학적 검사, 검사실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 단순 흉부 방사선 소견상 우측 대동맥궁 소견 보였다. 기질적 원인을 찾기 위해 시행한 인후부 조영술상 특이 소견 없었으나,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상 식도 체부에 박동성의 외인성 압박 소견이 있었다. 운동성 원인을 찾기 위해 시행한 식도 내압 검사상 식도 체부 상부에 수축파의 이상 소견을 보였으나, 24시간 pH검사상 비정상적인 위식도역류 소견 없었다. 증세 지속되어 시행한 식도 조영술상 식도 후벽으로 기관 문기부 상방에 2cm 길이의 외부 압박소견이 관찰되었다.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우측 대동맥궁과 동반된 기시 이상의 좌측 쇄골하 동맥에 의한 식도 압박이 보여 이에 의한 연하곤란으로 진단되었다.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어서 이의 교정을 위해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환자 거부하여 외래에서 경과 관찰중이다.

— Sat-2 —

식도에서 발생한 원발성 소세포암 1례

이상원*, 김태동, 이은주, 은종렬, 최선택, 장병익, 김태년, 정문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학교실

서론 : 식도암은 조직학적 분류상 대부분 편평상피세포암이나 선암이지만, 편평상피의 기저층에 위치한 argyrophilic 세포로부터 기원했으리라 여겨지는 소세포암이 드물게 관찰되기도 한다. 소세포암의 발생 빈도는 전체 식도암의 1.7~2.4%로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 50대 이후에 고령에서 발생하고, 주로 중,하부 식도에 발생한다. 증상은 편평상피세포 식도암과 비슷하나, 임상적 특징은 소세포암과 매우 유사한데 빠른 전이와 짧은 생존기간을 보이며 예후는 아주 불량하다. 종양은 전신화학요법에 반응을 보이며, 일반적으로 일차적인 치료로써 현재 시행되어지고 있다. 이에 연자들은 최근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이용한 조직검사상 원발성 소세포 식도암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37세 남자 환자로 내원 2개월 전부터 시작된 연하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연하증은 심하지 않았으며 고형음식을 먹을 때 발생하였다. 내원 당시 체중감소는 없었으며, 최근 악물복용 병력도 없었다. 과거력 및 가족력상 특이소견은 없었다. 이학적 검사상 활력 증후는 안정적이었으며 두경부 및 흉부 소견상 특이 소견 없었다. 복부 소견상 압통이나 반발통은 없었으며, 만저지는 종물도 관찰되지 않았다. 검사실 소견에서 말초 혈액 검사상 혈색소 13.8g/dL, 백혈구 6500/ μ L, 혈소판 334000/ μ L 일고, 혈청 생화학 검사는 정상이었다. 상부 위장관 내시경 소견상 미란성 위염과 함께 문지에서 31cm 부위에 1.2cm 크기의 변연부가 용기된 불규칙한 궤양이 관찰되었고, 조직검사상 소세포암이 진단되었다. 흉부 단순 촬영상 정상 소견이었고 흉부 및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는 기관 문기부 3cm 아래쪽에 식도벽의 비후가 의심되며 왼쪽 종격동 임파절 증대가 관찰되었다. 그 외 다른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기관지 내시경상 기관 내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진단 후 환자는 전신화학요법 시행 중이며, 3차 전신화학요법 후 시행한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상 부분적 관해를 보였으며, 현재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